

#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11
VI. 종합의견.....	12

## I. 일반개황

면적	488천km <sup>2</sup>	G D P (2008년도)	190 억 달러
인구 (2008년도)	4.80 백만 명	1인당GDP (2008년도)	3,958 달러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Manat
대외 정책	중국, EU 등과 협력 증진	환율(US\$기준) (2008년도)	2.30

- 구소련 당시 세계 10대 면화생산국에 들만큼 면화, 밀 등 농업부문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설비투자 부진으로 농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음. 러시아에 이은 구소련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확인매장량 7.49조 m<sup>3</sup>)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동국 에너지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 중국, 러시아 등의 경쟁을 부추겨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 1991년 구소련 독립 이후에도 니야조프 전임 대통령의 철저한 통제 하에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철권통치가 유지되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구소련 국가로 남아있음.
- 2006년 니야조프 전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2007. 2월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함에 따라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sup>E</sup>	2009 <sup>F</sup>
경제성장률	13.0	11.4	11.6	10.5	5.7
재정수지 / GDP	3.5	14.8	17.0	35.4	29.6
소비자물가상승률	10.4	7.1	8.6	8.9	4.1

자료: OECD CRAM, IMF, EIU.

#### □ 고성장세를 지속하던 실질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

- 2008년에는 건설 및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적 투자와 교통, 통신 및 소매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의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0.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감.
- 2009년에는 4월에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사태로 주요 성장 동력인 가스 생산이 감소되고,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5.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관 폭발 사고에 대해서 양국이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여 대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단됨.

#### □ 2008년 7월 이후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7월 석유제품과 교통비에 대한 가격조정, 국제식품가격 상승 및 2008년 5월 환율 단일화의 영향으로 18.9%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동년 말 국제식품가격 및 관세율이 하락하여 9%대로 안정되었음.

- 2009년도에는 국제상품가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더욱 둔화되어 4%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 둔화 전망

- 2008년 재정수지는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입(收入) 증가에 따른 재원 확충 및 환율 단일화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35.4%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공적 금융관리 개혁을 통해 2008년 10월 창설된 투르크메니스탄 안정화 펀드에 재정흑자를 적립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지출이 늘어난 반면, 수출입 관세율 하락, 가스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다소 둔화 될 것으로 보임.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 에너지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동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가 총수출 수입(收入)의 9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1990년대에 전체 수출의 10%에 달했던 면화 생산이 점차 둔화되어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1% 이하로 낮아짐.
- 2007. 2월 출범한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가스,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개발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쇠퇴해가는 면화생산 등 농업부문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수출루트 확보를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 유지

- 과거 니야조프 정부는 물가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금 동결, 고정 환율제도 유지, 생필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실시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해왔음. 또한, 정권유지를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 및 가스·전력을 무상으로 공급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
- 현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등 대외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음.

#### □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투르크메니스탄의 2008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7.94조m<sup>3</sup>(전 세계 매장량의 4.3%)로 러시아에 이어 구소련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1억 톤)로 추정됨.

####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로 투자 확대 전망

- 최근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부문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은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대신할 신규 에너지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중국, 러시아, 독일 에너지 기업들이 PSA(생산물 분배계약) 등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직접투자하고 있음.
- 석유·가스 분야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석유·화학, 면방, 건설, 통신분야 등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정부가 투자제도 미비, 환율제도 불안정, 수출루트 확보의 어려움 등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 화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실시

- 2009년 1월 1일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여 기존 5,000마넛을 1마넛으로 변경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함.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은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단순화하며, 회계와 시장경제 통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소액거래 용이, 공식·비공식 환율 격차 감소,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리디노미네이션 이후 환율은 달러당 2.85마넛으로 안정되었으며, 실제로 2009년 1분기에 마넛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치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공약인 화폐금융 시스템 안정화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500마넛을 제외한 모든 화폐에서 니야조프의 초상화가 다른 역사적 인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전임자로부터 독립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분석됨.

## □ 환율 단일화 조치로 공식 환율과 실거래 환율의 격차 해소

- 현 정부 집권이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환율체계를 개편하여 통계작성 시 적용되는 공식환율(달러당 5,200마넛)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공식환율(달러당 24,000마넛)의 차이를 점차 축소하여 왔음.
- 2008년 1월 1일부터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공식환율을 달러당 6,250마넛으로 비공식 환율은 달러당 20,000마넛으로 조정된 바 있으며, 2008년 6월 1일부터 공식환율과 비공식 환율을 통합하여 달러당 14,250마넛으로 환율을 단일화시킴.
- 환율 단일화는 화폐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수출 수입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 3. 대외거래

<표 3>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sup>E</sup>	2009 <sup>F</sup>
경 상 수 지	870	3,345	4,024	3,544	4,113
경 상 수 지 / G D P	5.1	15.6	15.5	18.7	16.8
상 품 수 지	1,997	4,598	4,300	6,294	2,710
수 출	4,944	7,156	7,919	11,895	6,862
수 입	2,947	2,558	3,619	5,601	4,152
외 환 보 유 액	4,458	8,059	13,222	16,713	9,414
총 외 채 잔 액	1,058	886	743	720	660
총 외 채 잔 액 / G D P	6.2	4.1	2.9	3.8	3.4
D. S. R	7.3	3.9	3.0	1.2	0.5

자료: OECD CRAM, EIU, IMF

####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0개월분 이상을 유지

- 에너지 수출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로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약 167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21.7개월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가스수출 감소로 외환보유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에 따라 수입역시 감소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2.7개월분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둔화 전망

- 동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석유 및 가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6년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석유 및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수입의 20% 증가로 인해 국내 수입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8.7%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7년 말 러시아와의 수출가격 재협상으로 2008년부터 천연가스 수출단가가 인상(1,000m<sup>3</sup>당 100달러→상반기 130달러, 하반기 150달러)되었으며, 2009년부터 수출단가가 유럽시장가격에 연동되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년 4월 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수출이 감소되어 경상수지 흑자폭은 물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외채규모

- 총 외채잔액은 2003년말 17억 달러에서 2009년 말에는 약 6.6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어 총 외채잔액/GDP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동안 외국자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도 어려웠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D.S.R

- 총 외채규모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총수출은 증가하고 있어 D.S.R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09년에는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3.0%(2007) → 1.2%(2008) → 0.5%(2009<sup>e</sup>)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야당 및 반대세력이 없어 정치 안정 가능

- 2007년 2월 11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전임 부총리이자 보건부 장관이었던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의회(Khalk Maslakhaty) 및 엘리트 집단의 절대적인 지지와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철권통치를 자행해온 니야조프 전임 대통령의 2006년 말 사망으로 신임 대통령 선거 실시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여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구공산당)을 주축으로 하는 단일정당체제 유지 및 실질적인 반대세력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치적 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권한 강화

- 2008년 9월 헌법이 개정되어 인민평의회(Khalk Maslakhaty)가 폐지되었으며, 의회(Mejlis)의 의원수가 65명에서 125명으로 증가됨으로써 명목상 국민의 대표자 수는 증가되었음.
- 동년 12월 민주적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유일합법정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승인한 비정부기구만이 후보를 낼 수 있어 일당체제는 여전히 유지
- 그러나, 동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주지사 임명권을 보유하고 국가안보회의(State Security Council)의 의장이 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음.

□ 러시아와 갈등 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협력 상대

- 투르크메니스탄은 연간 700억m<sup>3</sup>의 가스를 생산하며, 니야조프 정권이 2003년 체결한 25년 장기 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이중 약 500억m<sup>3</sup>를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Gazprom의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음.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저가 구입 후 우크라이나에는 고가판매를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한편, 중앙아시아에서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 있음.
- 2009년 4월 가스관 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대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으나, 동년 9월 13일 가스공급 재개에 합의함.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의 자국 가스 재수출을 반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고정가격 기반 가스공급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이 남아있음.
-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최대 가스수출 대상국이며,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 가스전개발에는 고비용이 소요되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공급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요하므로 현재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 2006. 4월 중국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2007. 8월 중국 CNPC 주도의 총 7,0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Central Asia Gas Pipeline) 건설에 착수하였고, 2009년 12월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 물량을 연간 300억m<sup>3</sup>에서 400억m<sup>3</sup>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중국은 러시아에 이은 두번째 가스 수입국이 될 것임(러시아에는 약 500억m<sup>3</sup> 수출).
-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2008년 후진타오주석의 답방을 통해 양국은 에너지 부문 이외에 섬유, 은행업, 통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약속하는 등 최근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음.

□ 가스 수출 다변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서방과의 협력 확대

- 최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에 국한된 가스 수출선 다변화하기 위해 서방과의 협력의사를 표방함. 2009년 7월에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나부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동년 9월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카스피해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2. 사회 및 소요사태

□ 장기 독재정권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이 많지 않아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 낮음

- 전임 니야조프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15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이 많지 않고 국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 대통령이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회불안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1. 주요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2008. 1월 OECD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높은 자원개발 가능성 및 신정부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 등을 바탕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09. 12)	D2 (2008. 11)
OECD	6등급 (2008. 1)	7등급 (2007. 1)
S&P	B2 (2006. 5)	

- Euromoney: 155/186('09. 3) → 155/186('09. 9)
- I.I: 129/177('09. 3) → 120/178('09. 9)

###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중기 인수가능
- Atradius: 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ECGD: 단기인수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Hermes: 제약조건이 있음.

### 3. 외채상환실적

#### □ 가스 수출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 에너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2005년 45억 달러에서 2008년 16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2009년 러시아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꾸준히 증가하던 외환보유액이 94억 달러 수준으로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부터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환보유액 증가세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총 외채잔액은 낮은 수준

- 투르크메니스탄의 투기 등급(B2, Moody's)로 분류되고, S&P 및 Fitch사에서는 등급평가 대상국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등 국제자본시장에서 소외되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외채가 소규모인데 반해 동국의 외환보유액 및 가스 수출 전망이 긍정적임을 감안할 때, 외채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임.
- 2009년 말 총 외채잔액은 6억 6천만 달러(GDP 대비 3.4%)로 예상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출입규모 및 직접투자잔액

- 대 투르크메니스탄 수출: 688만 4천 달러(2007) → 2,236만 4천 달러(2008) → 6,033만 3천 달러(2009.1~10월), 전년동기 대비
- 대 투르크메니스탄 수입: 69만 6천 달러(2007) → 17만 7천 달러(2008) → 70만 2천 달러(2009.1~10월), 전년동기 대비
- 직접투자잔액: 2건, 3만 3천 달러(2009년 9월말 기준)

□ 이중과세방지 협정 가서명

-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9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 및 금융정보를 무제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OECD 국가 중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됨. 동 협정이 체결되면, 향후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VI. 종합의견

- 에너지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 지속 등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2009년 가스수출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GDP 규모는 증가가 예상되고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가 대외적인 면에서 개혁 및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경제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2007년 2월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단일정당체제 유지, 언론 통제 등을 통해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사회적 우발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 대외적으로는 가스수출처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러시아 외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나부코 파이프라인을 통해 EU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증진도 추진하고 있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환율 단일화 및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화폐안정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최소화하고 있어 향후 경제투명성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사역 고 안 나 (☎02-3779-5654)  
E-mail : [anna@koreaexim.go.kr](mailto:anna@koreaexim.go.kr)